

“재정확보·네트워크 구축은 경찰포교 지름길”

전국 조계종 경승 스님 2014년 준비 세미나

“군·경찰 전담 스님이 상근으로 활동하도록 총무원과 각 본사에 건의 해 달라(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불교 신앙·사찰 특성에 따라 법요집 형식이 다르다. 경찰 법요집을 만들 경우 어느 신행단체에서 쓰더라도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도록 법요집을 통일 해 달라(우리절포교원 해철 스님)”

“경승단과 경찰전법단의 관계가 모호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승 스님들 모두 확인해서 소속사찰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 달라(충남 태전사 주지 도일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4년 전국 조계종 경승스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에 앞서 의식을 하는 모습.

전국 경승 스님이 모여 경찰 포교의 고충과 개선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2월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4년 전국 조계종 경승스님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원 전법단장 계성 스님, 경승실장 도문 스님(조계사 주지), 정용선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경승실장과 경승 등 1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승단과 경찰전법단의 현황과 활동계획을 공유한 뒤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과 경승단, 경찰전법단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원 스님이 기초장의를 맡았으며, 경찰전법단 사무국장 정범 스님이 경찰전법단 경과보고 및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16개 지방경찰청에서 경승으로 활동하는 스님들의 활동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기초장의에서 지원 스님은 경찰 포교현

장에서 활동하는 경승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승단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살폈다.

지원 스님은 “경승의 사명은 경찰청 산하 15만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법을 홍보해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신생활 등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찾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경승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경승단의 역사가 20년이 됐지만, 많은 경승 여러분께서 경찰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경승단과 경찰포교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경승단 활동을 활성화해 경찰포교의 새로운 계도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스님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종단차원의 경승조직 구축과 경찰포교 방

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필요 △경찰포교 방

120여 경승 포교 고충·개선점 공유 지원 스님 “종단 차원 경승조직 필요” 포교원 경찰법집 경승수첩 발간 계획

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승활동의 체계적 활동 모델 창출 △경찰포교와 경승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정범 스님은 경승단과 전법단을 소개하고 경찰포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폈다.

스님은 “1987년 조계사에서 경승단 발대식을 불행하면서 경승제도가 공식화됐는데, 어느 새인가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활동해 불자들이 법당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승 스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며 경승실과 경찰 법당의 관계가 모호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범

의 임무를 가동했으며 1998년에는 ‘경승령’을 제정·공포해 경승의 임무와 역할, 활동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2010년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단이 출범해 조계사의 협조로 전담 실무자를 배치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범 스님은 타종단과 함께 하는 경승단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경승의 경우 모든 종단에 문화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종단적 정체성이 모호해 종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여건이다. 물론 타종단과 연합해 협조하는 체계 역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처음에는 경승실로 시작했는데, 어느 새인가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활동해 불자들이 법당을 관리하게 되면서 경승 스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며 경승실과 경찰 법당의 관계가 모호함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정범

스님은 “불교에서 원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을 미루는 동안 10만 명의 신도를 두고 있는 원불교는 전략적인 포교활동을 통해 4대종교로서 경찰 포교를 하고 있다. 타종교는 포교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불교는 침체되고 있어 스님들의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범 스님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방청 전담경승 임명과 상주 사무과장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전법단 가입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회비납부) △지방청별 본사 포교국에서 발행한 통장으로 후원금 체계일원화 등 의안을 제시했다. 이날 조계종 포교원과 경찰전법지원단은 세미나를 통해 △본사(포교국)에 경찰포교 지원을 위한 체계 확립 △통일된 매뉴얼 준비(경찰법요집, 경승 수첩발행) △경찰전법단 전국 조직의 포교네트워크 선도화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전담경승 맥산 스님(선재선원)은 “경승으로 임명돼 서울청 법당을 찾았을 때 당시 불자들은 법당을 휴식공간 및 친목도모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경승 스님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먼저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경찰청이 출근하기 1시간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 삼배를 하는 경찰청들이 생겼고, 나중에는 108배하는 불자들도 생겨났다. 포교환경이 열악하지만 스님들이 먼저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에서 온 경승 스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진행됐다. 상당수의 스님들은 각 지방경찰청 경승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경승 스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카페·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화원을 확보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1963@hyunbul.com

전국에 800여 경승 활동...유치인 교화도 담당

군포교를 군승이 맡듯, 경찰포교는 경승이 담당한다. 경찰 포교의 역사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1987년 1월 조계사에서 경승단 발대식을 계기로 경승제도가 공식화 됐다. 그 해에 총 600여 명의 경승이 전국 230여 개 경찰서에 '4인 1조'로 위촉됐고, 경승 활동은 본격화됐다. 그러나 경승단 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한 점, 경승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경승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경찰을 대상으로 한 세심한 포교 방법의 부재 등으로 잠재기를 맞았다.

이후 포교원은 2010년 조계종 전법단을 출범하면서 경찰전법단도 출범시켰고, 조계사의 협조로 전담 실무자를 배치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경승 스님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경찰포교뿐만 아니라 유치인교화, 청소년교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활동도 함께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 문제, 경승 스님 부족, 타종교의 공격적 선교활동 등으로 현실은 경찰포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공무원 불자들, 연말을 훈훈하게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찾아 배식봉사



김상인 공불련 회장(사진 왼쪽)과 김맹규 공불련 교무부장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전국 불자 공무원들의 신행조직인 한국 공무원불자연합회가 경기도의 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인)는 12월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공불련 제11차 사회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상인 공불련 회장을 비롯해 복지관장 성화 스님과 100여 공불련 회원 및 가족들은 설거지 및 청소, 점심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안전행정부 및 기관불자회에서 준비한 과일등을 전달했다.

성화 스님은 “공무원 불자들이 현장 봉사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나눔 가르침을 배우며, 체험을 통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며 활발한

노덕현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제27차 이사회 개최

벽공 스님 등 3명 신입 이사 임명, 김준형·김재성 선임 연구위원 위촉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2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제27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이사로 도선사 부주지 현관 스님, 도선사 사회국장 도법 스님, 흥천 지장선원 주지 도성 스님, 장경사 주지 혜타 스님, 오용환(R&I 연구소장), 최학봉(SRN 심리상담연구소장)과 감사 한명호(세무법인 삼성대포) 등이 참석해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신입 이사 및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지원 스님은 “지금 이 세계적 명상 흐름과 IT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포교의 방향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불교와 명상, 심리의 접목을 담당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이 교육관 불사와 신규 분원 설치에 큰 원력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벽공 스님, 희철 스님, 혜성 스님 3명을 불교상담개발원 신입 이사로 임명하고, 교육관 불사 및 불교상담대학원대학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교상담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2인(벽공스님, 남윤지)과 선임 자격관리위원(김준형), 선임 대학운영위원(김재성)을 각각 위촉해 불교상담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나는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상생)

| | |
|-------------|---|
| 기본과정 (37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7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모집중

◆개강일시 : 2013년 12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 |
|--|-----------------|
| 자 격 과 정 | 교육 기간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 14주 과정 목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 | | | |
|-------------------|------------------|-------------------|-------------------|
|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
|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
|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 | |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